“동남아국가들, 한국불교가 도왔으면”

법륜 스님, 동남아 중심 11개국 순방 기자간담회

4~5월 두 달간 베트남부터 태국 · 인도 · 부탄 등 방문
각국 경제적 취약지역 살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파”

불교 국교로 입지 굳힌 곳 교단들 종교 위기의식 낮아
신자들 신앙·삶 연계 안 돼
“사상적 지원 필요성 느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대규모 홍수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서 구호활동을 펼친 법륜 스님. 사진제공=JTS

“외국에서 정토회가 궁금해 찾아오는 사람들은 저와 한동안 같이 지내며 정토회를 이해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뭐가 필요한지 정작 제가 모르더군요.”

지난 4~5월 두 달에 걸쳐 동남아를 중심으로 세계 11개국을 순방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스님의 순방 목적은 단순하면서도 뚜렷했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 실천불교를 지향하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정토회지만 그 대상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스님의 걸음을 옮기게 했다.

이 같은 순방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토회는 7월 13일 서울 정토사회문화회관 10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베트남을 시작으로 태국, 인도, 부탄,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실무진이 1시간 동안 각국에서의 활동을 소개한 뒤 법륜 스님은 “불교가 중심인 동남아국가들을 한국불교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왔으면 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정토회에 따르면 법륜 스님은 각국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을 방문해 지역민들의 삶을 돌아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태국에선 30여 년 전 미얀마 국경과 맞닿은 지역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담마누락재단 고아원을 찾았다.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스리랑카에선 영국 식민지 시절 남인도에서 강제 이주해온 타밀족이 많은 빈곤 지역 우바주를 방문했다. 인도에선 국립공원 건립을 이유로 정부에 의해 고향에서 쫓겨난 채 힘겹게 살아가는 데카바스티 마을 사람들을 만났다.

스님은 단순한 만남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JTS의 지원도 연계했다. 교육이 부족한 곳엔 학교 건물 건립을 돕거나 학용품을 지원하고,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먹을 것을 전달했다. 대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홍수로 수재민만 3300만 명이 발생한 파키스탄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종교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법륜 스님은 “튀르키예 · 시리아에서 한국불교 국제구호단체들의 활동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단체가 더 늘어나고 재정규모도 확대된다면 더 없이 좋겠다”면서 “동남아 불교국가의 어려운 지역을 서양이나 기독교보다는 우리 손으로 돕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한국보다 경제발전은 뒤처지지만 법륜 스님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동남아국가들의 발전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다. 특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는 향후 10년 안에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 부상할 만큼 안정적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정치 · 외교적으로 강대국 중심 교류를 이어가는 한국에서 불교계가 민간차원으로 중견국과의 협력을 다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이와 별개로 법륜 스님은 동남아국가들의 교단이 전통불교를 고집하면서 시대변화에 따른 종교적 위기의식이 떨어진다고 봤다. 사회변화를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고군분투하지만 개인신앙인 불교와는 전혀 접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리적으로는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운명론적인 해석을 하는 교단도 있었다. 근본교리에 밝은 줄로 알았던 상좌부불교 테라바다가 그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젊은이들의 활동은 불교에 기반을 둔 게 아닌 사회요구에 의한 것일 뿐이었다. 개인신앙과 사회활동이 따로 분리되면서 교리적인 혼란도 적지 않았다. 축원을 하고 재를 지내는, 불교를 하나의 의식으로만 알 뿐 기본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법륜 스님은 “그동안 정토회는 서양 중심으로 전법을 해왔다. 불교국가는 그곳만의 문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교리적인 교류는 지양해왔다”며 “하지만 이번에 사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술회했다.

스님은 이어 “교리에는 지식만 있지 인격이 없다. 또 부처님 일생에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해해야 불교를 기반으로 한 사회실천이 나올 수 있다”면서 “여성, 청년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정토회 행보를 묻는 질문에 스님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꼽았다. 우선 베트남상가협회와 협력해 국내 베트남 결혼가정과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법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2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 스리랑카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모색하고 있다.

법륜 스님은 “안산시에 있는 JTS 다문화센터만으로는 국내 수많은 다문화가정을 다 도울 수가 없다”며 “대형사찰과 주요 종단, 여러 단체들이 합심해 지원을 늘려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영양가득 보양식으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불교계 복지관들, 초복맞아
기업체 손잡고 지역사회에
닭곰탕 등 특별보양식 제공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7월 11일, 종로구 어르신에게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전복반계탕 600그릇을 제공했다.

무더위 속 장마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불교계가 지역사회 이웃에게 보양식을 대접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염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7월 13일 서울 탑골공원 앞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사회복지원각, 대표 원경)에서 ‘초복맞이 자비나눔 무료급식 행사’를 갖고 어르신 300명에게 영양 가득한 보양식을 대접했다. 이날 보양식은 닭곰탕과 과일샐러드로, 대표이사 보인 스님과 사무처장 해공 스님이 직접 나서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배식해 의미를 더했다. 복지재단 소속 자원봉사자 10여 명도 동참, 무더운 날씨에도 아침 일찍부터 닭곰탕 300인분을 준비했다.

보인 스님은 “잘 먹는 것이 보약”이라면서 “어르신들이 복지재단에서 준비한 닭곰탕으로 입맛을 찾고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재단은 나눔 행사와 더불어 부처님 자비를 전하고자 하는 불교사회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노인문화의 중심 1번지’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7월 11일 관내 1층 경로식당에서 종로구 지역 어르신을 초청, 보양식을 대접하는 ‘초복맞이 어르신 무료식사 및 스마트폰 활용 교육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광화문One팀 봉사단’과 함께한 이날 행사는 무더위와 장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KT그룹 희망나눔재단 후원금 1000만 원으로 마련됐다. 어르신들을 위해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전복반계탕 600그릇이 제공됐으며 이 밖에도 더위를 물리칠 찹쌀밥과 화채, 오이무침 등이 곁들어졌다.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광화문One팀 봉사단과 함께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을 대접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번 보양식이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도 7월 11일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을 실시했다. 해상운송업체 팬오션의 후원으로 1000인분의 삼계탕을 어르신들에게 배식할 수 있었다. 팬오션은 오랜 기간 센터와의 인연으로 한가위맞이 효실천, 노인의날 맞이 특식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관장 희유 스님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오랜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팬오션과 오랜만에 다시 대면으로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폭염이 예상되는 올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나눔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봉은사–장성군, 지역경제 살린다

7월 7일, 도 · 농상생 협력 MOU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가 장성군(군수 김한종)과 손잡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봉은사는 7월 7일 경내 구생원에서 장선군과 도농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봉은사와 장성군이 도농상생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관계 정립과 소통 및 교류를 정례화함으로써 역사 · 문화 ·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추천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봉은사의 역사 문화 및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데 협력하며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봉은사는 △도농 상생교류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성군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구매와 홍보△새로운 판로 확대를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에 적극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으로 봉은사는 장성군 특산물인 감과 복숭아, 쌀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지역경제를 돕는 데 일조하는 것은 물론 신도들에게 값 좋고 신선한 농산물을 소개할 수 있게 됐다.

주지 원명 스님은 “도시에 사는 우리는 농산물을 비싸게 사먹고 있지만 농산물 유통 구조상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매우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농민도 이용자도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오늘 협약은 장성군에서 쌀 등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면서 “유서깊고 신도 많은 서울 봉은사와 협약으로 모두가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임은호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 독 안 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